

보육시설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한 지불의사 분석

오호영* · 허승욱**

I. 서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은 대부분 생산(공급)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고, 소비(수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더욱이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에서 생산기반 확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및 소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보육시설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급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비자(학부모)단체 및 시민(농민·생협)단체를 중심으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사용하자는 요구가 점점증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급식은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다양화라는 측면과 급식수준의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유치원(교육인적자원부 소관)·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급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등)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단체급식의 교육적·영양학적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친환경농산물 급식의 실현은 성장기 어린이들로부터 시작될 때만이 그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만 국한되어 있는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한 논의를 보육시설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개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실현하는 데에는 비용문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시스템 구축 등 해결해야

* 단국대학교 대학원
 ** 단국대학교 교수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령전(學齡前) 아동을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와 지불의사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추진의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조사의 개요

1. 조사지역 및 방법

이 조사의 모집단은 아산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143개소(국·공립 3개소, 민간법인 19개소, 민간개인 75개소, 직장 4개소, 가정 42개소 등) 보육시설이다. 표본추출은 아산 시내 보육시설 143개소 중에서 4곳을 임의선택 하였으며, 선택된 보육시설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05년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불의사금액 측정은 친환경농산물 급식의 사회·경제적인 효과에 관한 설명과 함께 급식 1식 당 소요되는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먼저 제시하고,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 형태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표 1> 표본 추출

구분	A보육시설	B보육시설	C보육시설	D보육시설	계
유형	법인어린이집	법인유치원	법인어린이집	국립유치원	143
표본수	34	28	25	56	

2. 응답자의 특성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연령은 20대가 3.5%(5명), 30대가 81.1%(116명), 40대가 14.0%(20명), 50대가 0.7%(1명)이었으며, 70대가 0.7%(1명)를 차지했으며, 응답자의 평

균연령은 35세로 보육연령기 자녀를 둔 일반적인 학부모 연령대를 나타냈다.

응답자의 거주지는 아산시내 거주자가 95.1%인 136명이었으며, 시외 거주자는 4.9%인 7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별 분포는 고졸이 50.3%(7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대졸 44.75%(64명), 중졸과 대학원 이상이 각각 2.1%(3명), 초졸이 0.7%(1명)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은 200만원~300만원 사이가 40.6%(5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100만원~200만원과 300만원~400만원 사이가 각각 34.3%(49명), 17.48%(25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이하 자녀수는 2명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59.4%(85명)이었으며, 3명이 11.9%(17명), 1명이 28.0%(40명), 4명이 0.7%(1명)이었다(표 2)

<표 2> 응답자 특성

구분		비율(%)
연령별	20대	3.49
	30대	81.11
	40대	14.0
	50대	0.7
	70대	0.7
	계	100.0
학력별	초졸	0.7
	중졸	2.1
	고졸	50.34
	대졸	44.75
	대학원 이상	2.1
	계	100.0
소득수준별	100만원 미만	2.8
	100~200만원 미만	34.26
	200~300만원 미만	40.55
	300~400만원 미만	17.48
	400만원 이상	4.9
	계	100.0
고등학생 이하 자녀수별	1명	28.0
	2명	59.44
	3명	11.9
	4명	0.7
	계	100.0

Ⅲ. 보육시설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한 인식

1. 급식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 자녀들의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서 평균 81.5점으로 나타났다. 급식만족도의 최소치는 0점, 최대치는 100점이었으며, 현재 자녀들의 급식수준에 대하여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70점부터 90점대에 약 80%가량의 응답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표 3).

<표 3> 급식에 대한 만족도

점수	응답자수(명)	비율(%)
0~40	1	0.7
41~60	11	7.7
61~80	64	44.7
81~90	49	34.3
91~100	18	12.6
계	143	100.0
평균	81.5점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9%(67명)가 도시락 준비 부담이 없어서라고 응답했고, 그와 비슷한 비율인 약 43.4%(62명)가 식단 구성이 다양해서라고 응답하였다(표 4).

<표 4> 급식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도시락 준비 부담이 없어서	67	46.85
비용이 저렴해서	6	4.19
식단 구성이 다양해서	62	43.35
자녀가 좋아해서	5	3.49
기타	3	2.09
계	143	100.0

아산시 내 보육시설 10개소의 급식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육시설에서 1식당 소요되는 급식비용은 약 1,6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를 제시한 후에 비용의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설문한 결과,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56.0%(80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약간 저렴하다가 17.5%(25명)로 조사되었다. 반면, 약간 비싸다는 응답이 17.0%(24명)로 나타나, 현재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용의 수준에 대하여 대체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현재 급식비용의 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매우 저렴하다	14	10.0
약간 저렴하다	25	17.5
적당하다	80	56.0
약간 비싸다	24	17.0
매우 비싸다	0	0.0
계	143	100.0
평균	2.8	

현재 급식에 있어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37.1%(53명)를 나타내었으며, 조리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31.5%(45명)로 비슷한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영양적인 식단 구성이라는 응답이 29.4%(42명)로서 대체로 고른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표 6).

<표 6> 급식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우수한 식재료 사용	53	37.06
영양적인 식단 구성	42	29.37
조리시설의 철저한 위생관리	45	31.46
기타	3	2.09
계	143	100.0

2. 급식에 대한 관심도

각 지자체 별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조례의 인식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설문결과, 55.9%(80명)에 이르는 응답자가 들어는 보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른다는 응답이 약 40.6%(58명)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학교급식조례 제정여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학교급식조례나 친환경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미비하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및 급식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조례 제정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7).

<표 7> 학교급식조례 인지여부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잘 알고 있다	5	3.49
들어는 보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80	55.94
모른다	58	40.55
계	143	100.0
평균	2.37	

급식이 자녀의 심신발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78.3%(112명)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0.3%(29명)가 약간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급식이 자녀의 심신발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급식이 자녀의 심신발달에 미치는 영향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전혀 중요하지 않다	0	0.0
별로 중요하지 않다	0	0.0
그저 그렇다	2	1.4
약간 중요하다	29	20.3
매우 중요하다	112	78.3
계	143	100.0
평균	4.77	

친환경농업과 자연생태계 보전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79.0%(113명)에 이르는 응답자가 관련이 깊다고 응답하였으며, 관련이 조금 있다와 전혀 없다는 응답은 각각 15.4%(22명)와 2.1%(3명)로 나타났다(표 9).

<표 9> 친환경농업과 생태계 보전과의 관련성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모르겠다	5	3.5
관련이 전혀 없다	3	2.1
관련이 조금 있다	22	15.4
관련이 깊다	113	79.0
계	143	100.0
평균	3.7	

대부분의 응답자가 친환경농업이 자연생태계의 보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일부 응답자는 단체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중 농산물만 친환경식재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녀의 건강이 개선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고 어디서 어떤 것이 판매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매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있었던 바, 친환경농산물 판매의 저변 확대 및 홍보 등 판매활성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식품안전성 및 위생성 향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인 39.7%(81명)를 나타냈다. 그리고 지역 친환경농가의 소득향상이 26.4%(54명), 친환경농업에 의한 생태계 보호가 25.4%(52명)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체험 등 도농교류의 기회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8.5%(17명) 정도로 나타났다(표 10).

<표 10> 지역산 식재료 사용의 장점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식품안전성 및 위생성 향상	117	39.6
지역 친환경농가의 소득향상	78	26.4
친환경농업에 의한 생태계 보호	75	25.4
농촌체험 등 도농교류 기회 증가	25	8.4
계	295	100.0

주 : 중복응답 결과임.

3. 친환경농산물 급식의 선호 여부

현재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 급식의 식재료를 아산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설문한 결과, 93.7%인 134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6.3%인 9명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첫째, 자기 자녀가 먹을 음식이므로 되도록 맛있고 깨끗한 음식을 먹이고 싶기 때문이며 둘째, 농약이나 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농산물이 식품안전성이 우수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기 때문이고 셋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증대가 가능하며, 그로 인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유통단계가 축소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그만큼 신선한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표 11).

<표 11> 친환경농산물 급식 선호 비율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찬성	134	93.7
반대	9	6.3
계	143	100.0
평균	1.1	

한편, 급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점차 바뀌나갈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할 식재료는 59.4%에 이르는 85명이 채소류를 가장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선한 상태로 먹는 경우가 많은 채소류가 화학물질로부터 가장 취약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는 곡류가 21.7%(31명), 가공식품류가 14%(20명)로 나타났다(표 12).

<표 12> 우선적으로 바뀌야 할 식재료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곡 류	31	21.67
채소류	85	59.44
육 류	6	4.2
과일류	1	0.7
가공식품류	20	14
계	143	100.0

4. 바람직한 추가비용 부담비율 및 지원형태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재료를 바꿀 경우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학부모, 보육시설, 지자체가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지자체에서 보육시설 급식을 지원할 경우, 어떤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바람직한 추가비용 부담비율은 보육시설이 27.1%, 학부모가 28.0%, 지자체가 43.3%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대략 3 : 3 : 4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외의 주체로는 몇몇 응답자들이 노동부, 여성부, 환경부 등이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표 13).

<표 13> 바람직한 추가비용 분담비율

보육시설 비용 부담비율			학부모 비용 부담비율			지자체 비용 부담비율		
유효(%)	응답자 수(명)	비율(%)	유효(%)	응답자 수(명)	비율(%)	유효(%)	응답자 수(명)	비율(%)
0	3	2.1	0	3	2.1	0	4	2.8
5	1	0.7	5	1	0.7	10	2	1.4
10	11	7.7	10	11	7.7	20	8	5.6
15	2	1.4	15	4	2.8	25	2	1.4
20	27	18.9	20	41	28.7	30	21	14.7
25	12	8.4	25	10	7.0	33	1	0.7
30	71	49.7	30	43	30.1	35	2	1.4
33	1	0.7	33	1	0.7	40	32	22.4
35	2	1.4	35	2	1.4	50	50	35.0
40	9	6.3	40	10	7.0	60	10	7.0
50	1	0.7	50	12	8.4	70	4	2.8
70	2	1.4	70	4	2.8	80	5	3.5
100	1	0.7	80	1	0.7	85	2	1.4
계	143	100.0	계	143	100.0	계	143	100.0
평균	27.1		평균	28.0		평균	43.3	

바람직한 지자체의 보육시설 급식 지원형태에 대해서는 현물지원이 44.1%(63명)로 가장 높았으며, 현금지원 42.7%(61명), 세제지원 9.1%(13명), 기타는 4.2%(6명) 순으로 나타났다.

현물지원을 선택한 이유로는 현금지원이나 세제지원 시에 보육시설의 회계업무가 가중되어 인건비의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현물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현물지원이 현금지원 및 세제지원보다 상대적으로 비리나 부정의 발생가능성이 낮고, 현금이나 세제지원 시에 보육시설이 올바르게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너무 많은 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현금지원을 선택한 이유로는 각 보육시설이 필요한 식재료를 적기에 구입하여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식재료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융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그리고 보육시설마다 식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현물을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

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또한 현물지원 시에 식재료 공급업체의 선정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질이 낮은 식재료가 공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금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표 14> 바람직한 지원형태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현금지원	61	42.7
현물지원	63	44.1
세제지원	13	9.1
기타	6	4.2
계	143	100.0

세제지원을 선택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으며, 그 선택이유 역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타의견에서 세제지원이 다른 방법과 적절하게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투명성을 일정정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V. 보육시설 친환경농산물 급식에 대한 지불의사 분석

1. 지불의사금액의 분포

표본응답자 143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위한 월평균 추가적인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조사·분석해 본 결과, 0원에서부터 39,800원까지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WTP의 평균값은 8,360원이었으며, 추가적인지불의사가 없는(0원) 응답자는 14.0%(20명)이었으며, 최대치는 39,800원으로 나타났다(표 15).

<표 15> 추가적 WTP 분포

구분	응답자수(명)	비율(%)	비고
0원	20	14.0	추가적 지불의사금액 : 평균 8,360원 표준편차 : 7,091원
500원~5,000원	52	36.3	
5,001원~10,000원	33	23.1	
10,001원~15,000원	19	13.3	
15,001원~20,000원	14	9.8	
20,001원~30,000원	4	2.8	
30,001원~39,800원	1	0.7	
합계	143	100.0	

2. 상관관계 분석

현재 급식에 대한 만족도, 응답자 연령·학력, 월평균 가계소득수준, 급식이 심신발달에 미치는 영향, 현재 급식비용의 수준, 친환경농업과 생태계 보전과의 관련성 등 각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correlation을 실시하였으며, 변수의 정의는 다음 <표 16>과 같다.

<표 16> 변수의 정의 및 결과 요약

변수	정의	평균	표준편차
SAT	현재 급식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81.5	13.22
AGE	응답자연령 (단위 : 세)	35.1	4.95
EDU	응답자학력 (1=초졸, 2=중졸, 3=고졸, 4=대졸, 5=대학원 이상)	3.4	0.61
INC	가계월평균소득수준 (1=100만원 미만, 2=100만원~200만원 미만, 3=200만원~300만원 미만, 4=300만원~400만원 미만, 5=400만원 이상)	2.9	0.9
GRO	급식이 심신발달에 미치는 영향 (1=전혀 중요하지 않다, 2=별로 중요하지 않다, 3=그저 그렇다, 4=약간 중요하다, 5=매우 중요하다)	4.8	0.45
PCO	현재 급식비용의 수준에 대한 태도 (1=매우 저렴하다, 2=약간 저렴하다, 3=적당하다, 4=약간 비싸다, 5=매우 비싸다)	2.8	0.83
ECO	친환경농업과 생태계보전과의 관련성에 대한 태도 (1=모르겠다, 2=관련이 전혀 없다, 3=관련이 조금 있다, 4=관련이 깊다)	3.7	0.68
CHI	고등학생 이하 자녀수 (단위 : 명)	1.8	0.63

분석결과, 추가적 지불의사금액과 응답자의 가계월평균소득수준(0.372), 현재 급식비용의 수준에 대한 응답결과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가적 지불의사금액과 현재 급식비용의 수준과는 부의 상관관계(-0.274)가 있었는데, 이는 가계월평균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재 급식비용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추가적 지불의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자의 학력은 가계소득수준(0.32), 친환경농업과 생태계 보전과의 관련성(0.245)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다시 말해 최종학력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친환경농업과 생태계 보전과의 관련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가계 소득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계월평균소득수준과 현재 급식비용의 수준도 부의 상관관계(-0.18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월평균가계소득이 낮을수록 현재 급식비용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각 변수 간 상관관계

영역	WTP	SAT	AGE	EDU	INC	GRO	PCO	ECO	CHI
WTP		-0.046	-0.027	0.07	0.372**	0.074	-0.274**	0.047	-0.04
SAT			0.083	-0.037	-0.123	0.193*	0.004	-0.019	-0.024
AGE				-0.07	-0.109	-0.004	0.029	-0.021	0.143
EDU					0.32**	0.000	-0.149	0.245**	-0.008
INC						-0.003	-0.183*	0.1	-0.008
GRO							0.006	0.07	0.004
PCO								-0.132	0.115
ECO									-0.005
CHI									

주 : **는 $p < 0.01$, *는 $p < 0.05$ 유의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보육시설 학부모들의 급식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이지만, 친환경농산물 급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농업과 지역발전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월평균 금액은 가구당 8,360원이었으며, 추가비용의 부담은 보육시설 27.1%, 학부모 28.0%, 지자체(정부) 43.3%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불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월평균 가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재 급식비용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지불의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가계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현재 급식비용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의 추가적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이 8,360원이므로 이는 연간 100,320원의 지불의사가 있다는 것이며, 연평균 180식을 기준으로 할 때 1식당 557원의 추가적 지불의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친환경농산물로 급식을 할 경우 추가되는 비용은 1식당 784원(이지은·허승욱, 2005)이므로 전체 추가비용에는 하회하지만, 학부모 비용분담 비율(28.0%)을 고려한 추가비용(약 220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친환경농산물 급식은 식품안전성의 제고와 아울러 대량소비처의 창출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효과가 매우 크다. 또한 지역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게 됨으로써 지역활력화에도 큰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지불의사를 고려한 친환경농산물 급식정책의 형성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www.moe.go.kr)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www.kamis.co.kr)
 이빈파, “지역순환농업과 학교급식”, 농민과 사회 제35호,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2004.
 이지은·허승욱,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및 추가 비용규모 추정”,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3(3), 2005, 145-159p.
 허승욱·김 호, “친환경농산물의 지불의사금액 분석과 그린 마케팅 전략”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2(3), 2004, 317-332p.